



허준의 초상화

유네스코가 인정한 동의보감의 가치

허준이 1596년에 '조선의 실정에 맞는 의서를 편찬하라'는 선조의 명을 받고 편찬에 착수하면서 위대한 <동의보감>의 집필이 시작되었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자 어의로서 그 책임을 지고 의주로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 광해군의 어의로 활동하면서 의서편찬 작업을 계속해 1610년 동의보감의 집필이 마무리되었고 1613년에 초간본이 발행되기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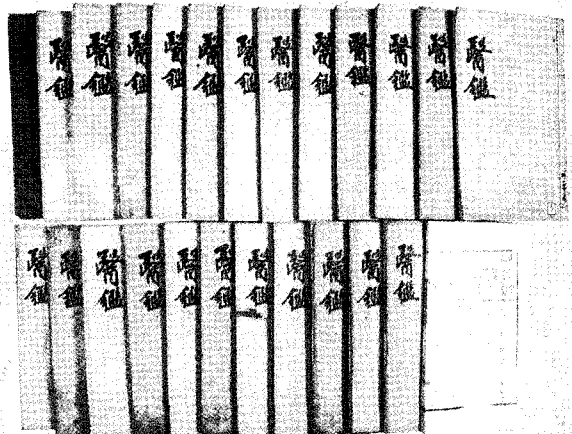
국내 의서인 <의방유취(醫方類聚)>나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을 비롯해 중국 의서 등 수백종의 의서를 총망라한 의학백과사전인 <동의보감>은 제9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시대정신과 독창성,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다. 세계기록유산의 주요 선정기준은 세계사적 영향력, 인류 역사에 대한 기록, 중요 장소와 지역에 관한 정보, 역사적 인물의 업적, 세계 역사와 문화에 관한 중요한 주제, 독창적인 형태와 스타일, 시대적 가치, 원상태로의 보존, 희귀성 등이다.

우선, <동의보감>은 중국과 일본에도 전해져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현재까지 의학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동의보감>이 질병의 증상에 따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와 쉬운 치료법을 소개하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의학서적이라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해 편찬되었고, 현재까지 원본이 잘 보관되어 있다는 점도 등재에 있어서 큰 작용을 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

동의보감의 가치를 세계에서 인정받다!

2009년 7월 31일 <동의보감(東醫寶鑑)>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의학서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된 것으로, <동의보감>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보물 제1085호이며 25권 25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의보감>의 어떤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지 알아본다. 이디터 최용균



동의보감에 담겨진 뜻깊은 의미

〈동의보감(東醫寶鑑)〉이라는 책 이름에는 허준의 남다른 전통의학에 대한 사상이 담겨져 있다. 동의는 중국의학에 존재하는 복의, 남의와 대등한 의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통의학은 중국학과는 전혀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의학임을 강조한 것이다.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허준의 이러한 전통의학에 대한 사상, 즉 한의학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유네스코가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의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한의학을 중국의학의 일부나 이류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중국에 앞서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한의학의 독자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또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동의보감의 구성에 담겨진 허준의 의지

〈동의보감〉은 내경(內景)편, 외형(外形)편, 잡병(雜病)편, 탕액(湯液)편, 침구(鍼灸)편 등 5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허준의 뜻깊은 의지를 여기저기에서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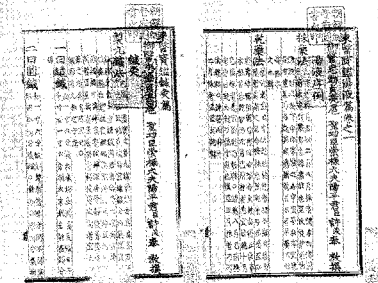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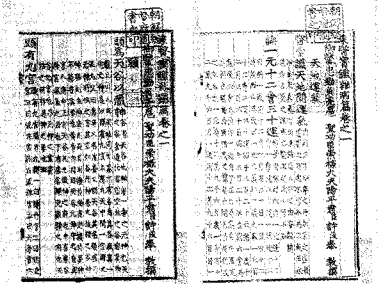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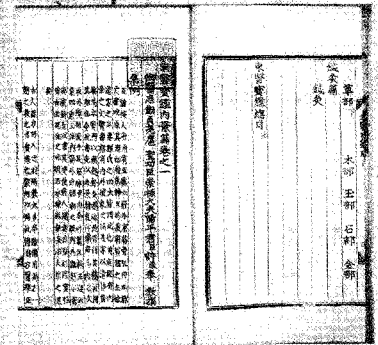
내경편은 몸 내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몸 내부에 있는 요소들이 밖으로 드러나 파악되므로 이것들을 조합하여 내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꿈, 목소리, 말투, 진액, 담음 등 인체 내부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요소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어서 오장육부와 대변과 소변에 대해서 설명했다.

외형편에서는 인체의 외부에서 관찰되는 부분들에 대한 의학적 기능과 병에 대해서 서술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부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처럼 외형편을 따로 구성해 인체의 각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전의 의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다.

잡병편에서는 잡다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 질병들의 발생 원인이나 증상, 특수한 상황에 발생하는 질병,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질병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했다. 잡병편에도 동의보감만의 특색이 담겨져 있다. 오운육기와 풍한서습조화(風寒暑濕燥火)와 같은 육기(六氣)를 잡병으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다. 보통 육기(六氣)는 감기를 포함한 외감상한병(外感傷寒病)과 연결되어 중요하게 여겨져 전통의서에서는 맨 앞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동의보감은 그 틀을 깬다. 이는 중국학과는 다른 새로운 한의학의 전통수립으로 보기도 한다.

탕액편은 약물을 다루는 편으로, 탕액편에 실린 탕액서례문에는 약물의 채취와 가공, 약물의 저장방법, 약을 달이고 먹는 방법, 약리이론, 오장육부와 경락 각각에 상응하는 약물 등이 설명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침구편**에는 침구의 실제와 침구 운용에 가장 필수적인 내용만 가려서 설명하였다. 침구문에서는 기가 흐르는 통로인 경락, 경락의 중간 역인 혈자리, 침의 종류와 시술법, 뜸의 이론과 운용, 침과 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각종 방법과 금기 등을 다루고 있다. ㉞



동의보감

사진출처 : 문화재청